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더 극적일수록 더 짜릿...영화 속 반전의 쾌감

오동진
영화평론가



모든 역사는 반전의 영화와 같다. 흥과 망, 성과 쇠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모든 영화는 주로 반전의 드라마를 그려 나간다.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는 영화의 단골 메뉴이자 소재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주인공은 처음엔 이리저리 차이기 십상이다. 관객들은 그의 어쭙잖은 모습에 혀를 끌끌 차며 보다가 주인공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기대를 건다. 그럼에도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아 포기하게 될 때쯤에 영화 속 주인공은 대반전을 일으킨다. 이런 서사는 미국 시드니 루멧이 만든 1982년 영화 ‘폴 뉴먼의 심판’이 제대로 보여 준다. 한때 잘 나가다가 워낙 골이골대로이고 협조적이지 않아 법조계에서 왕따를 당한 뒤 알코올에 찌들어 살아 가던 변호사 프랭크 겔빈(폴 뉴먼)이,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법원과의 대형 의료 과실 소송에 맞서는 이야기이다. 영화의 절정은 그 와중에 첫눈에 빠진 여자 로라 피셔(샬롯 램플링)가 알고 보니 저쪽에서 심어 놓은 첩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이다. 겔빈은 불한당에게 습격을 받아 얻어 터지기도 하고 자신을 매수하려는 가톨릭 주교에게 시달리기도 한다. 그건 다 랜잡다. 결국 피해자까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소송을 포기하려고 한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현실은 현실이다, 주인공 겔빈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겔빈은 포기하지 않는다. 영화는 마지막 법정 썬 피날레에서 대파판을 일으킨다.

영화의 반전 코드 모미는 진실의 승리
영화의 반전 코드가 주는 모미는 진실의 승리에 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공정한 정의’가 이기게끔 작가들은 서사를 꾸며 나간다. 전개와 클라이막스, 그리고 결론은 의도적으로 상충되도록 짜여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주인공은 분명히 지게 돼 있는데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 할리우드에서 통용되는 법칙 아닌 법칙은 ‘영웅은 죽지 않는다’(Heroes never die)’이다. 만일 영화의 결론에서 주인공이 죽거나 진실과 정의가 패배하는 이야기라면 그건 상업영화가 아니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영웅이 죽고,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으로 끝을 이어 나간다. 찌찌해도 어쩔 수 없다. 현실에서 정의는 이기지 못한다. 멕시코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이 2006년에 만든 ‘콘스탄트 가드너’에서 제약회사의 음모를 파헤치던 주인공 저스틴(랄프 파인즈)의 아내 테사(레이철 와이즈)는 살해 당한다. 그 사건의 진실을 쫓던 저스틴 역시 마지막에 살해 당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부당하고 불의하게도 진실은 이기지 못한다.

진실 ‘따위’를 이야기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할리우드 최고의 반전을 보여주는 건 ‘록키’ 시리즈다. 록키(실베스터 스텔론)는 영화 내내 사정없이 얻어 터진다. 1,2편에서 아폴로(칼 웨더스)에게도 그렸고, 3편의 클러버 랭(미스터 T)에게 처음엔 아예 졌으며, 4편에서는 소련의 기계군단 복서 이반 드라고(돌프 룬드그렌)로부터 몰아치듯 두들겨 맞는다. 그러나 관객들은 안다. 저러다가 록키가 반전의 한 방을 맞받아칠 거라는 걸. 피투성이가 된 록키가 상대에 반격하기 시작할 때 영화 속 링 밖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고 영화 밖 관객들도 환호하기 시작한다. 영화의 반전 코드는 흥행 코드이며 그 어떤 제작자와 투자자도 반전의 스토리 구조를 내려 놓지 못한다.

정치판 반전이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영화는 그걸



최근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데뷔 30년 만에 흥행에 성공한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

〈사진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300만 관객 돌파 ‘야당’ 반전 묘미
대중들의 정치사회적 욕망 잘 포착

의료 과실 소송전 ‘폴 뉴먼의 심판’
마지막 법정 장면서 파란 일으켜

‘록키’ 시리즈, 할리우드 최고의 반전
900만 관객 ‘내부자들’은 판타지물

따라 잡거나 그 이상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좀더 극단적인 수위의 표현을 맞춤형으로 보여주기 십상이다. 감독 우민호의 히트작 ‘내부자들’이 꽤나 폭력적이고 섹스 코드의 수위가 높았던 이유이다. 현실보다 더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흥행이 되지 않는다는 강박이 어느 정도 작동한 영화이다. 주인공 우장훈(조승우)은 경찰 출신 검사이다.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홍길동이다. 서자 취급이다. 그런 그에게도 출세 욕심이 있다. 우장훈은 결국 가독권 카르텔의 수하로 들어간다. 유력 대통령 후보인 장필우(이경영)와 재벌 회장 오현수(김홍파), 언론사 논설위원이자 정재계의 키패이커 이강희(백윤식)는 막강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그간의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 해왔다. 이강희 논설위원은 국민은 개돼지일 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인물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이자 총알받이 같은 인

간은 정치강패 안상구(이병헌)이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안상구의 손목을 자르고 버린다.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장훈이 스스로 잠입해 얻어낸 대형 증거로 기득권 ‘일당’에게 정의의 보복을 가하는 이야기이다. 그 반전의 드라마가 관객들에게 짜릿한 영화적 쾌감을 선사했다.

정치권 반전 승부수, 영화로나마 실현
이 영화가 2015년 7월에 개봉돼 약 4개월간 국내에서만 900여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기염을 토했다. 이유이다. 관객들은 이 영화에서, 다소 비정상적인 궤도이긴 해도,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 아닌 희망 같은 것을 얻었다. 그런 면에서 ‘내부자들’은 일종의 판타지 영화이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검경과 정치권의 만들어놓은 카르



실베스터 스텔론이 활약했던 록키 시리즈. 주인공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반드시 승리한다.

텔의 벽을 넘거나 뚫지 못한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요량으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가까스로 그것을 막아냈다 한들 그 진위의 공방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 아무리 짧아도 수년 가깝게 법정 공방을 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와 대중들을 지레 지치게 만든다. 반면 역전의 드라마를 담고 있는 반전 코드의 영화들은 2시간 안에 모든 시비를 가려 준다. 사람들이 현실을 벗어나 종종 영화에 빠져드는 이유는 이처럼 시간차 싸움에 있어 영화가 늘 한수 위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데뷔 30년만에 흥행에 성공한 ‘만년 과장 감독’ 같았던 황병국의 최신작 ‘야당’도 반전이 짜릿하다. 주인공 이강수(강하늘)와 마약 수사대 팀장 오상대(박해준)는 정치검사 구관희(유해진)에게서 강력한 뒷지지를 당한다. 이강수는 상대 조직원들이 다리에 붙인 불로 화상을 입는가 하면 강제로 마약 중독자가 된다. 오상대는 구관희가 교묘하게 심어 놓은 증거와 별건 수사로 뇌물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구관희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마약사범인 점을 고리로 정치권과 강력한 인맥을 쌓는다. 그는 서서히 검찰 수뇌부의 자리로 올라서기 직전이다. 영화 ‘야당’은 구관희가 쌓아놓은 모래성이 한꺼번에 휩쓸려 나가는 통쾌한 반전의 결말을 보여 준다. 이 영화가 최근 빈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극장가에서 300만을 넘어서는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 정치권의 반전 승부수를 영화로나마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야당’은 지금 한국의 관객들, 대중들의 정치사회적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이 영화 ‘야당’만큼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심정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현실이 영화에 답을 할 때이다. 그간 술한 영화는 현실에 답을 주려 노력해왔다. 이제 현실 정치가 반전의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간이 돌아온 셈이다.

이반 라이تمان이 1993년에 내놓은 코미디 영화 ‘데이브’에서 교활한 비서실장 밥 알렉산더(프랭크 란델라)는 대통령 미첼(케빈 클라인)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그 유고(有故)의 틈을 노리기 위해 얼굴이 닮은 가짜 미첼을 내세운 뒤 스스로 대권을 잡으려고 기를 쓴다. 그는 자신 위의 권력을 속이고 자신 아래로는 유권자인 국민을 속여 자신이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이때다, 라며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벌인다. 그러나 이 영화의 반전은 진짜 미첼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다. 비서실장은 자신 주변에 몰려와 부하뇌똥했던 일군의 지지자들이 몰밀듯 빠져 나간 후 그들이 버리고 간 유세 전단과 피켓 쓰레기 더미에서 망연자실하게 된다. 어쨌든 이 코미디도 올바른 쪽이 이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기이하게도 최근의 한국 정치판은 ‘데이브’의 엔딩 부분을 닮아 있다. 현실이 너무 영화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영화가 흥행이 안 된다. 현실이 더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영화보다 뉴스를 본다. 영화와 뉴스가 일정한 거리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회와 정치가 정상화되는 길이다. 영화는 늘 거리를 두려 노력해 왔다. 세상이 영화만 같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